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 사적 지정

동학농민혁명 성지 고창 위상 강화 · 군민 자긍심 고취 기여 등 기대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 ‘고창 무장기포지(茂長起包址)’가 2일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적으로 지정된 ‘고창 무장기포지’는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19필지가 해당되며 면적은 7390㎡이다.

고창출신 전봉준 장군 중심의 동학농민군은 음력 1894년 3월20일(양력 4월25일) 무장현 등 읍치면 당산촌(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전개를 알리는 무장포고문을 선포하며 기포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70여 개 지역에서 발생한 군현 단위의 농민봉기가 국지적인 봉기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농민봉기 확대의 출발점이 된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가 국가문화재(사적) 지정이라는 결과로 인정받았다.

무장기포의 역사성과 장소의 진정성은 「수록(隨錄)」, 「고부민요일기」, 「전봉준관결선고서」, 「전봉준공초」, 「취어」, 「오하기문」, 「임하유고」 등의 여러 사료를 통해 입증됐다.

그간 고창군은 수차례 학술토론회와 전문가 회의, 발굴(시굴)조사, 고지형 분석, 고지도와 현재지도의 지명 및 거리분석 자료, 지금까지 조사된 문헌과 구전자료의 일치 등에서 무장



무장기포지 사진.

기포지의 장소적 진정성을 확보했다.

고창군수 권한대행 이주철 부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반외세의 가치를 내걸고 민족의 자존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의 민주항쟁이며, 한국 역사상 최고 최대의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 무장기포지의 사적지정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고창의 위상강화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써 체계적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석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어린이날 이벤트 ‘풍성’

5-6일 공예 기네스 · 추억의 뽑기 이벤트 · 무료 공예 체험 등 진행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5~6일 이틀 간 ‘도전, 공예 기네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공예 기술로 기록을 겨루는 공예 기네스와 다양한 경품을 지급하는 추억의 뽑기가 운영된다.

어린이날 메인 이벤트인 ‘공예 기네스’는 조상들의 값진 제작과정 일부를 겨루는 행사다. 깃을 만들 때 쓰인 재료인 구슬과 오죽을 실에 가장 빨리 꿰는 팀이 우승한다. 기네스 기록 달성 팀에겐 고급 수공예품도 증정된다.

‘추억의 뽑기’ 이벤트는 장내에서 진행되는 미션 수행자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다. 미션은 3가지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을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영수증 리뷰, 행사 참여 인증사진을 올리는 SNS 공유 이벤트다. 미션 당 1번의 뽑기 기회가 제공된다.

뽑기는 1등 경품 ‘고급 수공예품’부터 5등 ‘한지 엮서’까지 다양하며, ‘뽑’이 없어 행사 참여자 누구나 경품을 받아 갈 수 있다.

특히 전주공예품전시관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선착순 100명의 어린이에게 무료 공예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은 ‘단선만들기’로 준비된 체험키트 100개가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활력을 찾은 한옥마을에 가족 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공예 기네스로 추억을 만들고, 뽑기로 경품도 받아 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뽑기 이벤트는 상시 운영되고, 공예 기네스는 오후 3시 선착순 모집을 통해 이뤄진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www.jonjucraft.or.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무주 김환태문학관, 어린이 특별전 ‘어흥! 호랑이 이야기’ 개최

무주군이 호랑이를 주제로 한 특별전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김환태문학관 1층 특별전시관에서 3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어린이 특별전 ‘어흥! 호랑이 이야기’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동물인 호랑이를 주제로 했으며, 아동 도서 130여

권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발레하는 호랑이’, ‘호랑이씨 숲으로 가다’, ‘날아라 호랑이’, ‘호랑이 똥은 뜨거워’, ‘이주이주 특별한 아기호랑이’, ‘호랑이가 간다’ 등으로 채워져 있어 호랑이와 관련된 동화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호랑이 인형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이 있으며, 호랑이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호랑이 가면 만들기의 경우 호랑이를 형상화한 책상에 색연필이 구비돼 있어 전시장을 찾은 어린이가 직접 다양한 색을 칠하면서 가면을 만들어 착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날 맞아 체험놀이 · 공연 · 영화상영 진행

2022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험놀이마당, 공연마당, 영화상영으로 나눠 펼쳐진다.

이에 따르면 체험마당에서는 오전 10시 박물관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박물관에서 배부하는 활동지 속 전시품을 찾아 6개의 도장을 모두 받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페이스페인팅과 비눗방울놀이,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놀이도 준비했다.

특히 올해 어린이 날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기념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의 소속 13개 국립박물관이 연합해 ‘놀며 크는 어린이 함께하는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기획했다. 박물관을 찾은 모든 어린이에게는 활동북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옥외뜨락에서 열리는 공연마당에서는 5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와 연계해 전주대학교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공연인 싸울아비의 ‘파이어 파이터스(FIRE-FIGHTERS)’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day’ 행사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람료와 체험료는 모두 무료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어린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희망과 꿈을 가득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남원예촌 관서당, 서당문화체험 진행

남원시는 남원예촌 관서당에서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주말에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서당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남원에 남아 있는 유일한 관서당에서 사서삼경등 서당공부를 전공한 훈장님과 함께 서당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통서당에서 배울 수 있는 ▲인성·예절프로그램 ▲사자소화를 훈장님과 함께 읽어보는 글소리 체험 ▲삶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로 구성된다.

서당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시민과 관광객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남원예촌 관서당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시가 머무는 숲’ 시인 초청 특강

시집전문도서관인 전주시 평화동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시인과 시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학산숲속시집도서관에서 오는 시인을 초청해 ‘나를 찾아가는 시, 나에게서 뻗어나가는 시’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정음 출신인 오는 시인은 2002년 월간지 ‘현대시’로 등단해 시집 ‘마음의 일’, ‘원손은 마음이 아파’,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등을 펴냈으며, △박인환문학상(2014년) △대산문학상(2019년) △현대시작품상(2019년) 등을 다수 수상한 시인이다.

현재 책을 주제로 한 도서 팟캐스트 ‘책읽아웃’의 진행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시인은 이

날 시 낭독과 함께 도서관을 찾은 독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산숲속작은도서관은 이번 오는 시인의 강연에 이어 △유희경 시인의 ‘읽는 기분 쓰는 마음’(6월 17일) △심보선 시인의 ‘우리는 과연 책을 따라 살 수 있을까’(9월 16일) △나희덕 시인의 ‘시, 잠수함 속의 토끼’(10월 21일) △신용복 시인의 ‘잘 지내자고 말하는 시’(11월 18일)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가 머무는 숲’ 강연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 또는 학산숲속시집도서관(063-714-3525)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